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 전략무기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잠시소에 오르시어 지상대지상중장
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
발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
하시였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
을 장쾌하게 리뜨리며 《북극성-2》형
이 눈부신 심판을 내뿜으며 만리대공
을 향해 날아올랐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리
용하는 중장거리전략탄도탄과 리대식
자행발사대를 비롯한 무기체계전반에
대한 기술적지표들을 확정하는데 목적
을 두고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
여 지상에서의 팽발사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 대출력고체발동기의 시동특성
을 확정하였으며 능동구간비행시 탄도
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 대출력고체
발동기들의 작업특성, 계단분리특성들
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
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기동특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새로 설계제작한 자행
발사대차의 기동 및 운영상태를 극악
한 지상환경속에서 시험완성하고 실지
탄도탄발사를 통하여 그 기술적지표들
을 완전히 확정하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는 주변국
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용한 우리 인민의 자주적힘, 불굴
의 기개를 싣고 수중에서뿐아니라 지
상에서도 멋지게 만리대공으로 치솟
는 우리의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북극성》탄도탄의 자랑찬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성공의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으며 시험발사에 참가
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군인들을
얼싸안으시고 시험성과를 열렬히
축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생신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열렬한 충정의 마음을 간
직하고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전투
명령을 가장 훌륭하고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고 완벽하게 관철하고 시험에서

도 단번에 성공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은 작전리용에
편리하면서도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
할수 있는 우리 식의 우월한 무기
체계이며 발사대차와 탄도탄의 설계
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명실공히 주제탄, 주제무기라고 하시
면서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더해
주는 우리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데 대하여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번 시험발사는 나라의 로켓공업발전
에서 의의깊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
면서 이제는 우리의 로켓공업이 역
체로켓발동기로부터 대출력고체로
켓발동기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기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공업
으로 비상이 강화발전되였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수중과 지상
인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악의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빛나는
대성공과 자랑찬 패승의 역사를 거듭
새겨온 로켓공업의 고귀한 투쟁사는
그 어떤 역경이 백점천점 덧쌓인다 해
도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毅한 신념
과 혁명적의지를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으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
주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래임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울려퍼진 장엄
한 불리성은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
자들이 탄생 75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험발사가 끝난 후 지상대지상중장
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
과 군인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발사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넓은 품에 얼굴을
파묻고 기쁨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깊은 밤, 이
른새벽 가리심없이 포연질은 화선에 언
제나 함께 계시며 고생도 시련도 달게
나누시고 신변의 위험마저 아랑곳없이
전략무기개발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뜨거운 격정속에
우러르며 자신들이 걷고있는 길이 단
순한 과학의 길이 아니라 우리 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를 옹호하고 우리 혁
명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임
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불굴의 정신력
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우리
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로켓
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